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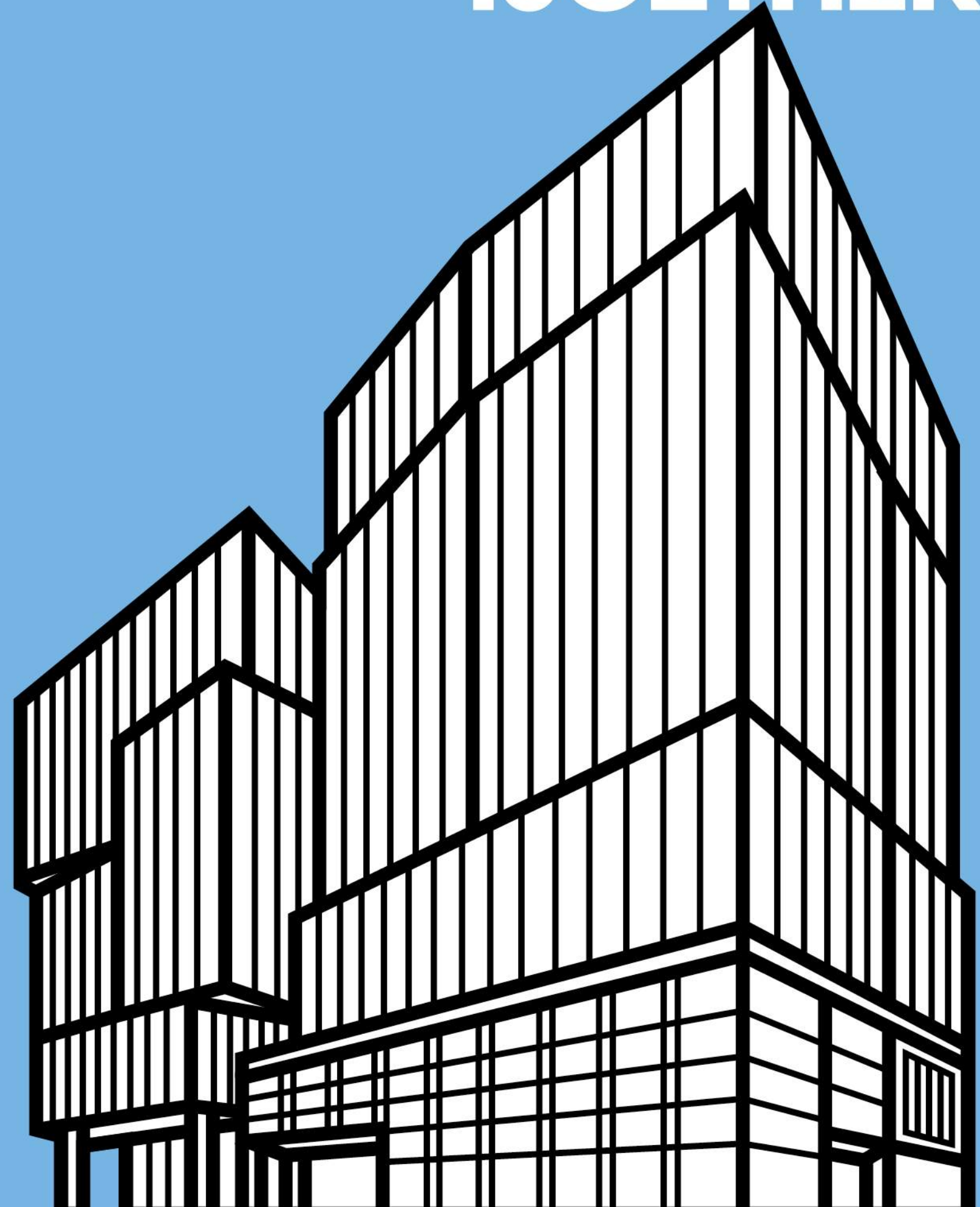
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19 5 + 6

BUILD
TOGETHER



www.daewooenc.com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낼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컬러링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DAEWOO E&C MAGAZINE
2019 5 + 6

대우건설인



20



26



48



8

BUILD
TOGETHER

- 2 스페셜 리포트
새로운 도약의 중심점이 되다
대우건설 신사옥
- 8 테마
지금, 다시, 신뢰
- 10 테마 story
신뢰로 풀어 쓰는 경제학
- 12 테마 poll
체크해봅시다 — 당신의 신뢰 지수
- 16 테마 talk
성과를 내고, 사람을 얻는
신뢰의 법칙
- 20 현장에서 찾은 지혜
을지로에 정점을 찍다
세운6-3오피스빌딩 현장
- 26 선배에게 듣다
진심 중심
플랜트사업본부 김광호 본부장
- 30 출근길 인문학
세종에게 배우다
- 32 글로벌 TMI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라크 TMI
- 34 트렌드 인사이드
다리도 블록처럼 조립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 38 직장의 神
이제 일자목 증후군에서 탈출하자!
- 40 티타임 도시 여행
스스로가 풍경이 되는 도시
페즈
- 44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온 편지
- 46 취미 레슨
홈퍼니싱, 어디까지 아시나요?
- 48 대우건설인 +
푸르지오의 이유 있는 변신
- 52 대우건설 뉴스
2019년 5+6월 대우건설 뉴스
- 56 독자 편지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인쇄 금강인쇄



새로운 도약의 구심점이 되다

대우건설 신사옥

사옥(社屋)은 ‘회사가 위치한 건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역사와 철학,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자리한다. 대우건설은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오늘의 을지로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신사옥을 구심점 삼아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가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신사옥에서 내다본 서울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 광화문부터 북한산까지 펼쳐지는 전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Build Together’를 실현해나가는 근거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을지로가 이제 서울의 미래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함께 업무시설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광화문을 잇는 차세대 스마트 오피스 지구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을지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엔진이자 대우건설 신사옥의 동지, 을지 트윈타워가 있다. 지하 8층, 지상 20층, 연면적 14만6,675.88㎡(약 4만4,370평). 서울 도심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을지 트윈타워는 동관과 서관으로 나뉜다. 대우건설은 서관 전체에 동지를 틀어 일부 흩어져 지냈던 대우건설 임직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고, 이를 통해 지난해 선포한 대우건설의 뉴 비전 ‘Build Together’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근거지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번 통합 신사옥으로의 이전을 기점으로 대우건설은 근무 방식과 조직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서 및 본부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사옥 12층 전 층을 회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회의실부터 소규모 미팅룸까지 다채로운 타입으로 조성하고, 최신식 회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앞으로 이곳에서 부서 간 경계를 넘나들며 대우건설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

이번 신사옥에서 대우건설은 사무공간 외에도 임직원들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대표하는 비즈 센터가 2층부터 4층까지 조성된다.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는 대형 스틸 설치 작품이 천장을 장식한 2층 로비는 높은 천장과와 부드러운 자연광을 들이는 대형 채광창이 방문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곳에는 은행, 라운지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3층에는 330석 규모의 대규모 강당을 필두로 크고 작은 전시 및 미팅 공간이 들어선다.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과 컨퍼런스, 강연 및 강좌, 문화 프로그램 등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4층에는 대규모 직원식당과 직원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라 직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약 5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시설, 빠른 입출입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책임지는 스피드 게이트, 오피스 층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목적층 운행 엘리베이터 등 프라이م 오피스의 위상에 걸맞은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아케이드가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라이프스타일 숍과 고감도 캐주얼 레스토랑이, 지상 1층에는 드렉스토어와 문구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곳 아케이드는 대우건설 임직원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찾는 파트너들, 지역 주민과 일반인 등에게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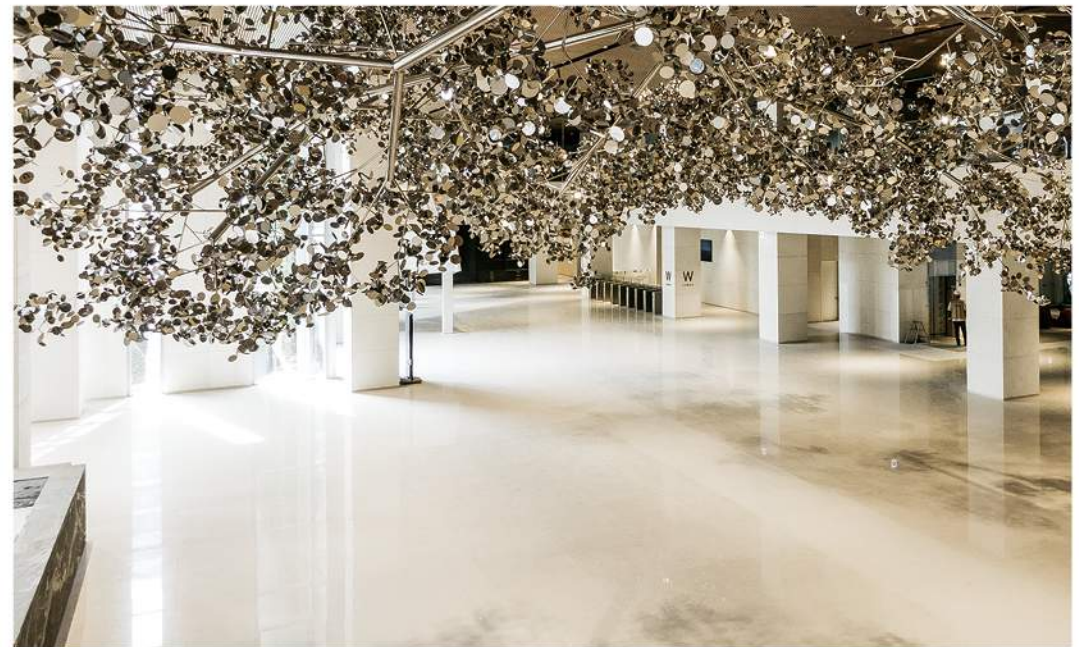
좌. 대우건설의 도전과 열정을 표현한 미디어아트가 1층 입구에서 방문객을 반긴다.
우.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스피드 게이트와 목적층 운행 엘리베이터.

친환경 오피스와 스마트 오피스의 만남

이번 신사옥 이전은 대우건설의 비전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새로운 계기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사옥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테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친환경 사옥’, 로비나 편의시설 등을 지역 주민과 일반인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소통형 사옥’, 지정좌석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근무 공간을 선택하는 ‘자율형 사옥’ 등 다양한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우건설 신사옥 역시 자연친화적인 오피스, 나아가 자연과 휴식을 겸비한 고품격 친환경 오피스를 뜻하는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을 표방하고 있다.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재활용재 이용, 절수형 위생기기 및 고효율 기기 사용, 단열성능 향상, 대지녹지공간 확보 등의 적용 기술을 통해 대우건설 신사옥은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등을 획득하며 일찍이 친환경 건축물로 공인받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우건설 신사옥은 ‘스마트 인텔리전트 빌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돋보이는 점은 최적의 업무공간이다. 2.8m의 높은 실내 층고와 탁 트인 구조,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이 한층 더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무실 커튼월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대우건설 임직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닐 수 없다. 가까이에 남산 N서울타워, 종묘와 창경궁부터 멀리 잠실 롯데타워까지 서울의 거의 모든 랜드마크가 한눈에 보일 만큼 황홀한 파노라마 뷰를 선사한다.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는 2층 로비에는 은행,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신사옥에서 가장 먼저 돋보이는 점은 최적의 업무공간이다. 2.8m의 높은 실내 층고와 탁 트인 구조,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history

1977 — 2008 랜드마크가 되다 서울역 사옥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1970년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로도 유명했다. 서울역에 내리면 마주하게 되는 위치라 ‘서울의 얼굴’이라고도 불렸다. 최근에는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로도 유명해졌다.

2008 — 2019 내실을 다지는 시간 광화문 사옥

대우건설이 광화문 사옥에서 보낸 10여 년. 국내외 건설 시장의 지형 변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건설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내실 경영을 도모했다.

2019 —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을지로 신사옥

2019년 창립 46주년을 맞아 대우건설은 올해 비전 ‘Build Together’를 새롭게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을지로 신사옥으로의 이전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을 실게 되었다.



임직원을 섬세하게 배려한 편의시설

이번 신사옥에서 업무 환경과 함께 가장 달라진 점은 임직원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편의 및 휴게시설이다. 먼저 4층에 위치한 직원식당은 약 1,600m²(약 480평)에 540석 규모를 자랑한다. 영양과 맛을 동시에 고려한 식단, 매일 골라 먹는 즐거움이 있는 다채로운 메뉴,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인테리어 등 모든 면에서 정성을 쏟았다. 이곳 4층에는 아름다운 조경과 전망이 돋보이는 전망정원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 식사 후에 채충전을 위한 휴식을 갖거나 동료 직원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에도 제격이다. 전망정원뿐 아니라 옥탑층에 마련된 바람정원 역시 신사옥의 또 다른 대표 휴식처가 될 것이다. 또한 4층에는 직원 복지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어린이집이 조성된다.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 고민이었던 임직원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들이 함께 등원해 생활하게 되며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들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우건설은 임직원의 복지 및 편의를 배려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4층 전망정원과 옥탑층 바람정원이 임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면, 1층 흔적의 마당과 모퉁이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휴식처다. 위부터 전망정원, 모퉁이광장, 바람정원.



어서 와! 을지로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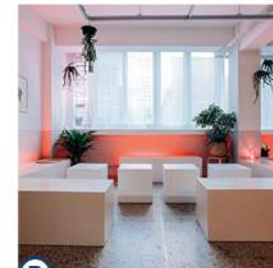
널리 알려진 대로 을지로 신사옥 주변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맛집과 명소들이 가득하다. 동시에 간편도 찾기 어려운 흥미롭고 신선한 공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을지로에 젊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핫 플레이스들을 먼저 찾아가 보자.



우리도 힙스터처럼! 을지로 힙스터 메카



A 신도시
그야말로 을지로 힙스터들의 성지. 유명 DJ들이 노래를 트는 파티가 있는 날이면 장안의 힙스터들이 다 모인다.
• 중구 을지로11길 31 4~5층
• 평일 오후 6시~오전 2시, 금 오후 6시~오전 3시, 토 오후 3시~오전 3시, 일 휴무
• @seendosi



B 분카샤
1970~80년대 일본 시타팝이 시종일관 흐르는 가운데, 낮에는 고소한 라떼와 후르츠산도를 맛보는 카페로, 밤에는 바번위스키를 넣은 칵테일을 출품하는 펍으로 변신한다.
• 중구 을지로14길 20 2층
• 월~토 정오~자정, 일 정오~오후 8시
• @bunkasha



C 우주만물
신도시의 매력에 푹 빠졌다면 우주만물에 둘러보자. 5명 친구들의 중고 상품 등을 판매하는 가게다. 어릴 적 동네 문방구에서 보았을 법한 장난감으로 가득하다.
• 중구 을지로11길 29 2층
• 오후 2~8시, 화~수 휴무
• @cosmoswholesale



D 아크엔북
최근 '책 터널'로 SNS에서 큰 화제가 된 바로 그 서점. 책뿐 아니라 리빙, 문구, 가전, 뷰티 제품을 큐레이션해 소개한다. 마블 시리즈 도서와 굿즈를 만날 수 있다.
• 중구 을지로 29 지하 1층
• 오전 10시~오후 10시
• @arc.n.book_official

<올리브 매거진> 추천 을지로 신상 맛집



E 을지식당
미쉐린 2 스타 레스토랑 '라 팔레 도르' 출신의 셰프가 꾸린 캐주얼한 프렌치 퀴진. 을지로 달팽이 소면, 프랑스 육회가 추천 메뉴.
• 중구 충무로 47 3~4층
• 월~금 오후 6시~자정
• @brasseriedeulji



F 깍비어컴퍼니
전국 맥주 양조장에서 만든 크래프트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전문 양조사가 취향에 따라 '인생 맥주'를 추천해준다.
• 중구 을지로 157 3층 다열 376호
• 평일 오후 7~11시, 토 오후 2~11시, 일 휴무
• @ggeeek_beer



G 이멜다분식
이멜다라는 가상의 인물이 자신의 헛간을 유럽풍 레스토랑으로 꾸며 최고의 음식을 선보인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중구 청계천로 160 3층 바열 315호
• 오전 11시~오후 9시, 일 휴무
• @imeldafnb



H 화담
가성비 좋은 와인과 가성비 높은 메뉴의 만남. 을지로에 위치한 와인 바다로 메뉴인 을지로 꿀빵이 파스타가 인기.
• 서울시 중구 을지로9길 14
• 월~토 오후 5시~오전 1시, 일 휴무
• @hwadam_winebar

메가트렌드, 뉴트로 열풍이 궁금하다면



I 호랑이
세운상가에 위치한 감성 뉴트로 콘셉트의 카페. 산딸기, 무화과 등 제철 과일 후르츠산도가 별미다. 호랑이 라떼와 환상 궁합이다.
• 중구 을지로 157
• 오전 11시~오후 9시, 일 휴무
• @horangiicoffee



J 커피환약방
'과연 여기가 맞나' 하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불현듯 나타나는 곳. 빈티지 아이템으로 꾸민 공간은 마치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세트 같다.
•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 월~금 오전 8시~오후 10시 30분



K 태극당
장충동의 터줏대감 태극당도 을지로 디스트릭트C에 입점했다.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부터 모나키와 전병 등 인기 디저트까지 본점의 매력을 그대로 살렸다.
• 중구 을지로 29 지하 1층
• 오전 10시~오후 10시
• @taegeukdang



L 호텔 수선화
뉴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곳. 와인과 칵테일, 해외 수제 맥주까지 두루 갖췄다. SNS 유명 별미인 오픈 샌드위치는 오후 7시까지만 판매하니 참고할 것.
• 중구 충무로7길 17 4층
• 월~금 정오~자정, 토 정오~오후 11시, 일 휴무
• @hotel_soosunhwa

trust



지금, 다시, 신뢰

흔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덕목으로
치부하는 신뢰. 하지만 이제 신뢰는
조직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어벽을 치고, 오직 최악의 성과를 내지 않는
것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임직원의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
변화를 주저하고 혁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영 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톱 2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시, 신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신뢰는 조직 구성원을 결속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며, 혁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촉매제다.

10	테마 story	신뢰로 풀어 쓰는 경제학
12	테마 poll	체크해봅시다 — 당신의 신뢰 지수
16	테마 talk	성과를 내고, 사람을 얻는 신뢰의 법칙

build together
#trust

신뢰로 풀어 쓰는 경제학

신뢰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요소의 속도와 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동인이다.
쉽게 말해 신뢰는 속도를 놓고,
신뢰가 높으면 모든 것이 빨라진다.
신뢰는 속도와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신뢰는 세금이며,
높은 신뢰는 배당금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스티븐 코비는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당신의 조직이 신뢰가 높지 않다면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낭비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월급 명세서에
'신뢰세'라고 찍혀 나오지 않으며 보통 다른 문제로 위장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신뢰가 낮은 조직에서 낭비하는
세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불필요한 중복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중복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직의 위계질서, 복잡한 관리 계층, 중복되는
구조에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 복잡한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지나치게 많은 서류 작업,
형식주의, 통제, 복잡한 결재 과정, 정부 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지속적인 개선과 거리가 멀다.
- 사무실 정치 정보 숨기기, 내부 싸움, 숨은 뜻 찾기, 의제
숨기기, 부서 간 경쟁, 헐뜯기, 같은 주제를 놓고 계속되는
미팅과 같은 행동을 낳는 사무실 정치는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 번성한다. 당연하지만 시간, 재능, 힘, 돈의 낭비를
불러오고 창의력, 관계 구축, 경력 개발을 방해한다.
- 만연한 태만 신뢰가 낮은 조직의 직원들은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한다.
- 잦은 이직 낮은 신뢰 문화 속에서는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이직률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신뢰가 높은 조직은 신뢰가 낮은 조직의 세금과 반대되는
배당금을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고객은 신뢰하는 기업과
사람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사고, 더 많이 소개하며,
더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가 높은
기업은 혁신의 문화가 보다 쉽게 조성될 수 있다.
혁신과 창의력이 번성하려면 정보 공유, 서로 공을 다투지 않는
태도, 모험 정신, 실수해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협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높은
신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혁신은 기회, 성장,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가져다준다.



“
낮은 신뢰는
세금이며,
높은 신뢰는
배당금이다.
”

구글, 넷플릭스, 휴렛팩커드…
무엇이 최고의 기업과 최악의 기업을 만드는가?

실제 높은 신뢰 문화를 이룬 글로벌 기업의 예를 살펴보자.
구글의 수석 기술 임원인 토머스 윌리엄스는 직원들이 다람쥐
젓바퀴같이 반복적인 업무를 지속하게 만드는 대신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윌리엄스는 이것을 '자기의 젓바퀴를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고 불렀다.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
속도에 맞춰 실험과 혁신을 수행할 권한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창의적인
모험을 유도하고 업무에 대한 즐거움을 배가하여 조직 전체에
혜택을 안겨준 것이다.

넷플릭스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기업의 신진대사가
'통제'라는 개념에 정체되어 '길고 복잡한 회계 절차'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비웃었다. 그 대신 그는 직원들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직원들에게 상반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기업의 사례도 있다. 과거 휴렛팩커드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회사의 장비를 집으로 가져가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엔지니어는 따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거나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관리자들은
엔지니어가 그 장비를 회사에 반납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존중을 표시했다. 이런 문화는 이 회사에서 강력한 신뢰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신뢰 문화를 보여주었던 휴렛팩커드에서 2007년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회사는 언론에 정보를 유출하는 이사들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회사 간부들에 대한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한 사설탐정을 이사회 구성원이나 언론인으로 가장시켜
통신회사로부터 통화 기록을 빼냈던 것이다.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정직성의 상징이었던 휴렛팩커드의 윤리
강령은 많은 기업들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어설픈
무례한 행동으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직원에 대한
존중을 훼손한 휴렛팩커드는 명성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휴렛팩커드라는
브랜드를 이전보다 낮게 평가한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공기처럼 당연시
하며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설명했듯이
기업에서의 높은 신뢰는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고의
동기부여다. 신뢰는 직원들로부터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관계까지 바꿔놓는다. “낮은 신뢰는 세금이며,
높은 신뢰는 배당금이다”라는 신뢰의 공식을 기억해
오늘날 꼭 필요한 진정한 성장을 이뤄내는 즐거운 일이 당신의
조직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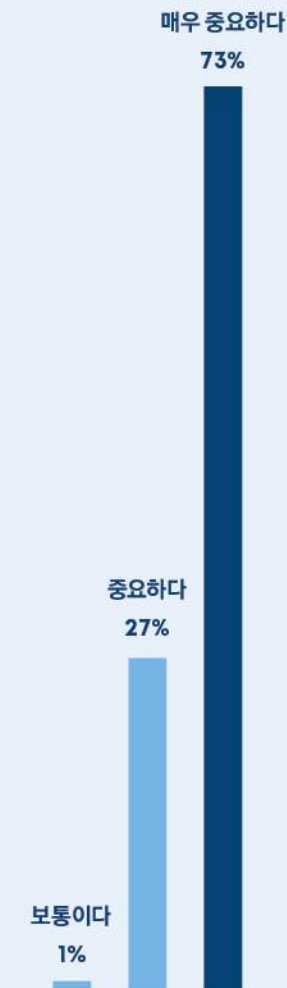
question &

체크해봅시다 — 당신의 신뢰 지수

사보 <대우건설인>에서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신뢰에 대한 대우건설인의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00명의 대우건설인이 생각하는 신뢰받는 사람, 신뢰하는 방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사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뢰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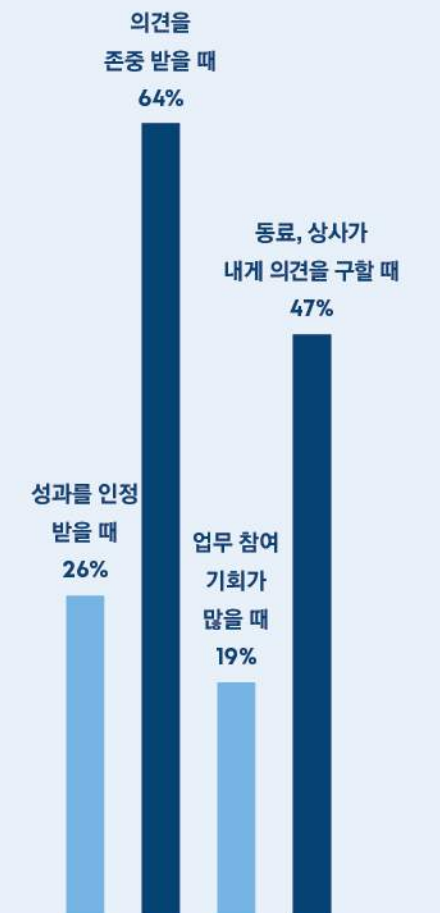
※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중복 선택을 허용했습니다.

Q1
직원 간의 신뢰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조직 직원 간의 신뢰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응답자 73%가 매우 중요하다고, 27%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신뢰의 중요성을 대우건설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글 검색어 추세를 연구한 데이터 과학자 세스 시티븐스 다비도위츠가 말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번번이 신뢰가 깨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기란 사랑 고백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중요성만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표현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Q2
당신이 직장에서 신뢰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그렇다면 우리는 회사에서 언제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 대우건설인은 1위 '의견을 존중받을 때', 2위 '동료, 상사가 내게 의견을 구할 때'를 꼽았다.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조직 내에서 성과를 인정받거나 업무 참여 기회가 많은 것처럼 존재감이 빛나는 때만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부하 직원으로 대우받는 순간순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answer

Q3

가장 신뢰 가는
상사 스타일은?

책임감 강한
술선수범형 선배
54%



명확한 업무 지시,
두뇌형 선배
53%



친절히 업무 설명하는
상담사형 선배
27%



공사 구분 철저한
21세기형 선배
14%



가장 신뢰 가는 상사 스타일로 '술선수범형 선배'와 '두뇌형 선배'가 1, 2위를 다했다. 1위를 차지한 상사 스타일은 책임감 강한 술선수범형. 이 리더십은 가슴형 리더십과 머리형 리더십이 모두 합쳐진 타입이다. 성실성과 친화력, 배려심으로 신망이 두터운 점은 가슴형 리더십에 해당하고, 직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부하 직원의 업무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면모는 머리형 리더십의 특징이다.

Q4

가장 신뢰 가는
부하 직원 스타일은?

성실하게 배우려는
노력파 후배
61%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하는
센스형 후배
44%



업무에 적극적인
열정파 후배
32%



해박한 지식과
IT 기술력을 갖춘
미래형 후배
11%



가장 신뢰 가는 부하 직원 스타일은 1위부터 4위까지 고른 편차의 득표수를 기록했다. 1위 '성실하게 배우려는 노력파 후배'는 과반수를 넘긴 61%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2위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하는 센스형 후배', 3위 '열정파 후배', 4위 '정보통신에 특출한 미래형 후배' 순이다.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배가 선호하는 후배상은 업태, 직종을 아우르며 '배움의 자세로 노력하는 후배'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춘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Q5

당신에게 신뢰감을 주는
대화 스타일은?

인격적인 배려,
공감하는 말투를 구사하는
휴먼 다류형
48.5%



집중해서 듣고, 받아 적어
의사 전달 왜곡이 없는
팩트 체크형
42.4%



요점만 뽑아
짧고 굵게 대화하는
15초 광고형
27.3%



긍정, 열정적인 호응으로
당신의 의욕을 높여주는
드라마틱형
15.2%



앞서 정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는 타이밍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다. 마찬가지로 신뢰감을 주는 대화 방식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맥락의 결과가 나왔다. 인간적인 배려, 공감하는 말투를 구사하는 '휴먼 다류형'이 신뢰감을 주는 대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내용 왜곡이 없는 '팩트 체크형'과 군말 없이 용건만 전달하는 '15초 광고형'도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대화 스타일은 방청객 모드로 대화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드라마틱형'이었다.

Q6

직장 생활에서 신뢰감을
일게 만드는 행동은?

자기 의견, 자신의 업무
방식만을 고수하는
쇄국정책형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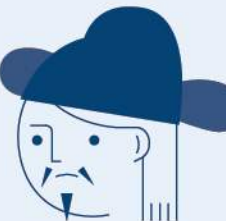
불필요하게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는
사또 나으리형
52%



뒷담화를 늘어놓고
말을 옮기고 다니는
암행어사형
50%



타인의 아이디어에
비판적인 의견만 내는
개혁 반대파형
38.8%



가장 신뢰감을 저버리는 행동은 1위와 4위가 54%, 38%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복 응답이 많았다는 의미다. 신뢰를 깨는 행동 1위는 자신의 의견, 자기 업무 수행 방식을 고수하는 '쇄국정책형'이었다.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른 행동은 업무를 떠넘기며 책임 전가하는 타입, 3위는 뒷담화를 늘어놓는 타입, 마지막으로 4위는 타인의 아이디어에 비판적인 논조로 일관하는 타입이었다. 신뢰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상대방이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분명하다.

성과를 내고, 사람을 얻는 신뢰의 법칙 — 리더십, 팔로어십, 파트너십

신뢰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각각 이뤄지며,
그만큼 까다로운 숙제이기도 하다.
리더십, 팔로어십,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leadership

trust

partnership

followership

신뢰의 리더십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삭빠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소심한 사람, 대범한 사람...
여러 인간 군상이 모여 있는 회사에서는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의사소통, 상호작용, 전략 회의,
결정 과정 등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와
신뢰 구축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혁신도 일어날 수 없다. 간단한 프로젝트임에도
부하 직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동료를 신뢰하지
못해서, 거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복잡한 일,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보고 문건,
회의록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떠올려보라.
리더는 믿음을 주는 사람인 동시에 조직원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직의 리더라면 꼭 알아야 할,
성과를 내고 사람을 얻는 신뢰의 리더십,
세 가지 원칙을 알아보자.

2

두 번째 원칙: 상대방을 존중하라.
존중은 부하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요인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리더는 부하
직원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
뛰어난 리더는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결속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동료에 대한 존중과 도움이다.
존중의 표현은 부하 직원에게 신뢰를 주고,
더 나아가 일의 동기부여까지 이끌어낸다.
꼭 기억하라. 사람은 무엇가를 받아들이거나
결정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따른다는 것을.

1

첫 번째 원칙: 정직하라.
정직은 기술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실용성의 측면에서도 옳다.
신뢰의 리더십을 보이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이다.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은
바로 정직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일은
조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리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단지 이 기업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하워드 숄츠가 약속한 말,
즉 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거나 나이 많은 숙련자들을
고용하겠다는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모두가 믿기 때문이다.

leadership



3

세 번째 원칙: 자율권을 부여하라.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독독한
사람을 고용한 다음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독독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현명한
행동이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즉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율성과 자원을 부여받은 사람은
대부분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

내가 상사라면 어떤 부하 직원을 믿을까?

좌충우돌 신입 때는 알 수 없다.

왜 일이 자꾸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는지 말이다. 모두 이상한 상사와 더 이상한 회사 탓인 것 같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대리나 과장급이 되면 내 실수가 눈에 들어온다. 후배가 늘어나면서 상사에게 던진 사소한 말 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 남은 회사 생활을 뒤바꾼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업무와 관계를 결정짓는 신뢰의 한 곳 차이. 회사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팔로어십의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한다.

1 첫 번째 비결:
회사는 은행이다. 내가 나를 5만큼 넣으면 5의 이자가 붙는다.
조직과 나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발전을 통해 조직을 발전시키는 상호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노력해보라. 회사를 향한 열정이 곧 투자가 되는 것이다. 국내 모 식품사 대표를 지낸 한 원로 기업인은 젊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회사는 은행입니다. 내가 나를 5만큼 넣으면 5에다 5의 이자가 붙어 10만큼의 내가 되게 돌아오고, 내가 나를 10만큼 넣으면 10에다 10만큼의 이자가 붙어 20만큼의 내가 되게 해줍니다.”

2 두 번째 비결:
올바른 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끄는 팔로어가 되라.
우리가 속한 조직에는 분명히 조직의 방향을 이끄는 리더라는 드라이버가 있고, 조직의 실행 부분을 담당하며 미들맨과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팔로어가 있다. 리더의 지시나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팔로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다. 주의할 것은 무조건적인 순응을 하거나 예스맨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반론이나 다른 시각을 수용하지 않고 모든 조직원이 한 방향으로만 정렬한다면, 이는 차라리 뿔뿔이 댄 방향을 쳐다보며 달리는 조직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이라도 리더의 결정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꾸준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조직만이 더욱 신뢰를 쌓으며 성과를 낼 수 있다.

3 세 번째 비결:
리더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백기사 팔로어를 신뢰한다.
이미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리더는 알고 보면 약한 존재다. 리더의 생사여탈권을 그의 리더, 그리고 수많은 팔로어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리더들은 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 그런 그들이 부하 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충과 보완’이다. 리더는 부하 직원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흠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나서길 기대한다. 리더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도움을 제공하는 ‘백기사’가 되어라.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개척자인 리처드 레빅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기업에 남는 것은 평판뿐이다.” 시장의 신뢰는 평판이 좌우한다. 고객이 기업의 건실함을 믿고, 하청업체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평판은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파트너십에서 나온다

보통 파트너십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기업과 기업은 물론 고객과 기업, 하청업체와 기업, 지역사회와 기업까지 포괄적인 관계망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세계지식포럼 리포트 ‘부의 재편’에 따르면 파트너십 구축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 속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편이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 강의에서 배운 파트너십과 기업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파트너십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창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파트너십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십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어떤 변화도 없다면 파트너십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파트너십을 듣기 좋은 말로 돈보이게 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의 효과를 계량화하지 못하면 이는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업, 하청 업체,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최우선 목표를 재무 성과를 내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실행 가능한 것과 세부 목표를 정의했는지 확인해보자. 실행 가능한 목표를 파악하고 수익 개선, 비용 절감, 새로운 시장 진출, 서비스 개발 등 세부 목표를 설정했는지

스스로 계량적 질문에 답해보면서 파트너십이 단단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고객, 공급업자, 유통업자, 투자자,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당사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기를 권한다.

- 당신의 브랜드는 약속을 지키는가?
-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가?
- 당신의 브랜드는 파트너와 고객에게 좋은 의도를 보여주는가?
- 수익을 올리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건 아닌가?
- 당신의 브랜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 고품질, 우수함,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당신의 브랜드는 성과를 연상시키는가?
- 당신의 회사를 친한 친구에게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현 상태를 진단하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성실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좋은 평판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직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뢰성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followership



partnership



현장에서 찾은 지혜

eulji twin tower

을지로에 정점을 찍다
세운6-3오피스빌딩 현장

을지 트윈타워의 완공을 보름 앞둔
지난 4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된
주역들을 만나 3년간의 대장정을 마친
소감을 들어봤다.

146,675.88 ^{m²}
연면적

230 ^{kwh/m²·y}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1,100 days
공사 기간

14,707.30 ^{m²}
구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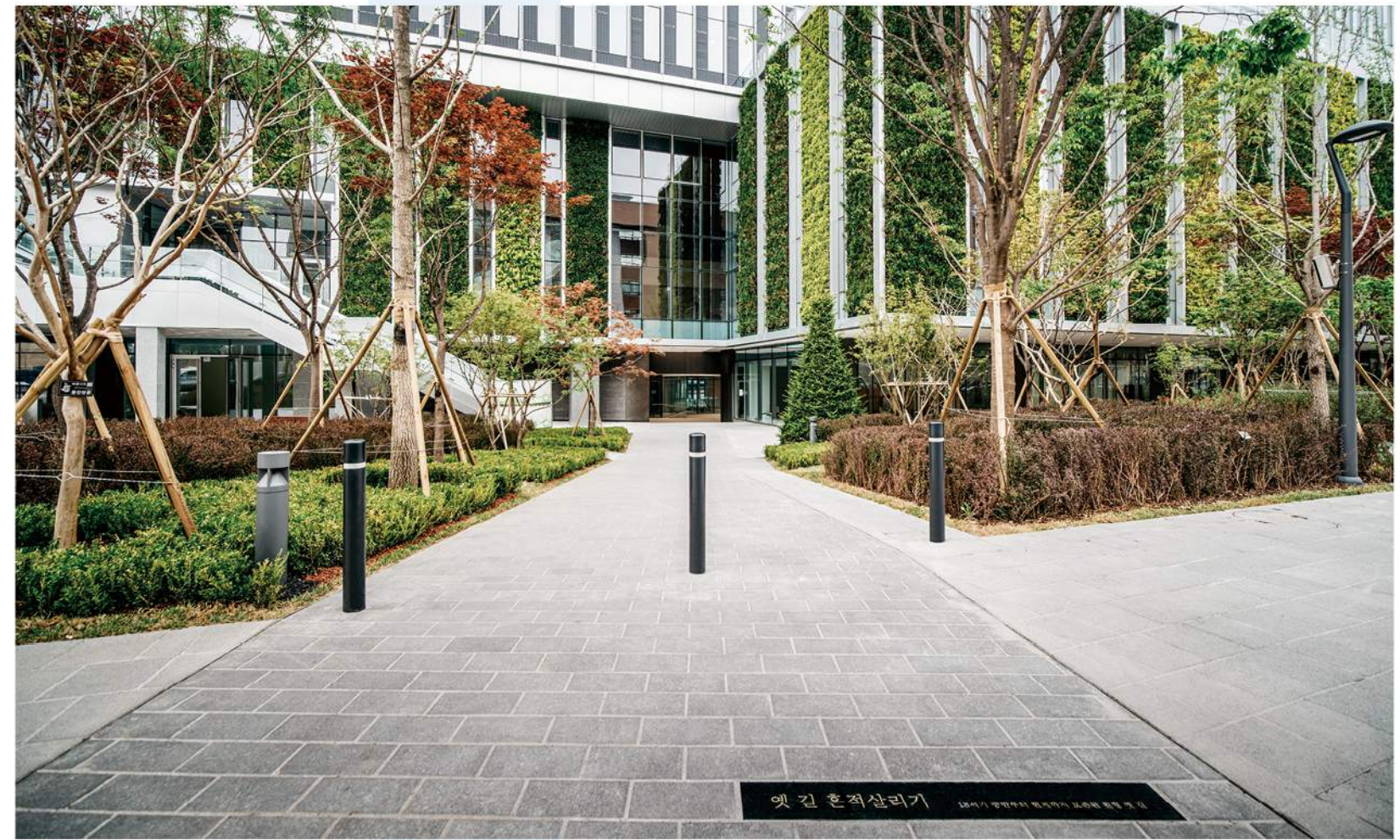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을지 트윈타워

을지 트윈타워는 자연과 지역, 기업과 시민, 임직원 사이를 연결하고 서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심 재생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무 설계팀에서 설계를 맡은 장경순 과장은 자연, 사람, 도시가 간직한 역사를 해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했다. 특히 고도 제한, 옛길 재현, 친환경 건축,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안전 관리에 힘썼다. 장경순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을지 트윈타워는 지하 8층~지상 20층의 2개동으로 이루어진 트윈타워(Twin Tower) 구조입니다.

서울시 고도 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높이로,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경관을 가로막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왕산, 북악산, 낙산 일대 등 내사산 중 가장 낮은 낙산(125m)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고도 제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을지로 유동 인구와 거주민들은 탁 트인 도시 환경을 확보하게 됐죠.” 그에게 을지 트윈타워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묻자 을지 트윈타워 4층 전망정원에서 손끝으로 N서울타워를 가리켰다. “일몰 시각에 남산을 뒷배 삼은 N서울타워 위로 해가 넘어가는 풍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또한 을지 트윈타워는 남향의 유리 전체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하는 등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해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가치도 겸비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 1등급 건물로 친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입주한 직원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 자동 제어 프로그램 개선에 힘쓰고 있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기질 개선에도 앞장서 실내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계/전기팀 이상원 부장은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통상적으로 현장에 준공 허가가 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편이지만 식당, 주방, 어린이집, 강당 등 직원들이 이용하게 될 편의 시설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를 쉼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의 얼굴 격인 입면에는 통유리로 건물 외벽을 둘러치는 커튼월 마감을 도입했다. 창호재로 단열 효과가 우수한 로이 북층 유리 이중창을 사용해 소음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놓치지 않았다.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주변 지역의 옛길을 부분 보존해 을지로의 역사성과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을지 트윈타워 지상 1층 통로는 옛길을 살려 시민을 위한 보행 동선으로 만들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공사 진도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을지로 시대,
이곳에서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를 바랍니다.”
김성일 소장



을지로에 세운 일터, 쉼터, 삶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인 만큼 세운6-3-1,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랐다. 특히 도심재생사업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얹혀 있고,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며, 고려해야 할 법규 등이 방대해 난이도 높은 사업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안전 검사다. 을지 트윈타워의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하면 을지로4가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점이 메리트로 꼽힌다. 지하철과 근접한 건물의 입지 조건은 장점이었지만, 반대로 지하 구조물과 지하철 역사와 선로가 근접한 건설 현장은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했다. 품질팀 이병현 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장 인근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을지로4가역의 9번,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역과 선로가 근접했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와 터 파기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서울교통공사와 착수 회의를 거치면서 수시로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점검은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는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약 3시간만 가능했다. 때때로 철야 근무를 설 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불철주야 일했고, 서울교통공사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덕분에 을지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이 편리해졌고, 건물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밤새도록 이어진 현장 직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장은 주 52시간 탄력적 근무제를 준수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서류, 회의 등을 줄이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 준수와 휴무 사용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기준층 지상팀 김태훈 사원은 “퇴근 후 자기 개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에너지로 다시 일에 몰입하고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조금 다른 의미로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린 직원도 있다. 포디움 지상팀 최정우 사원이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 결혼식을 올렸다. “현장 직원들과 단체 미팅을 하면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이 한참 바쁠 때 결혼식이 맞물렸지만 소장님과 동료들이 마음 폭 놓고 걱정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훈훈한 현장 분위기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전원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미처 못다 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눴고, 일 년에 한 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동료애를 쌓았다. 준공을 앞둔 시점까지 전 직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공사를 총괄한 이운달 부장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이었다고 말했다. “안전문제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전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 대우건설 직원들이 만족하고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작은 부분 하나하나, 끝마무리를 세심하게 챙기며 ‘역시 우리 대우건설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선배에게 듣다

진심 중심

플랜트사업본부 김광호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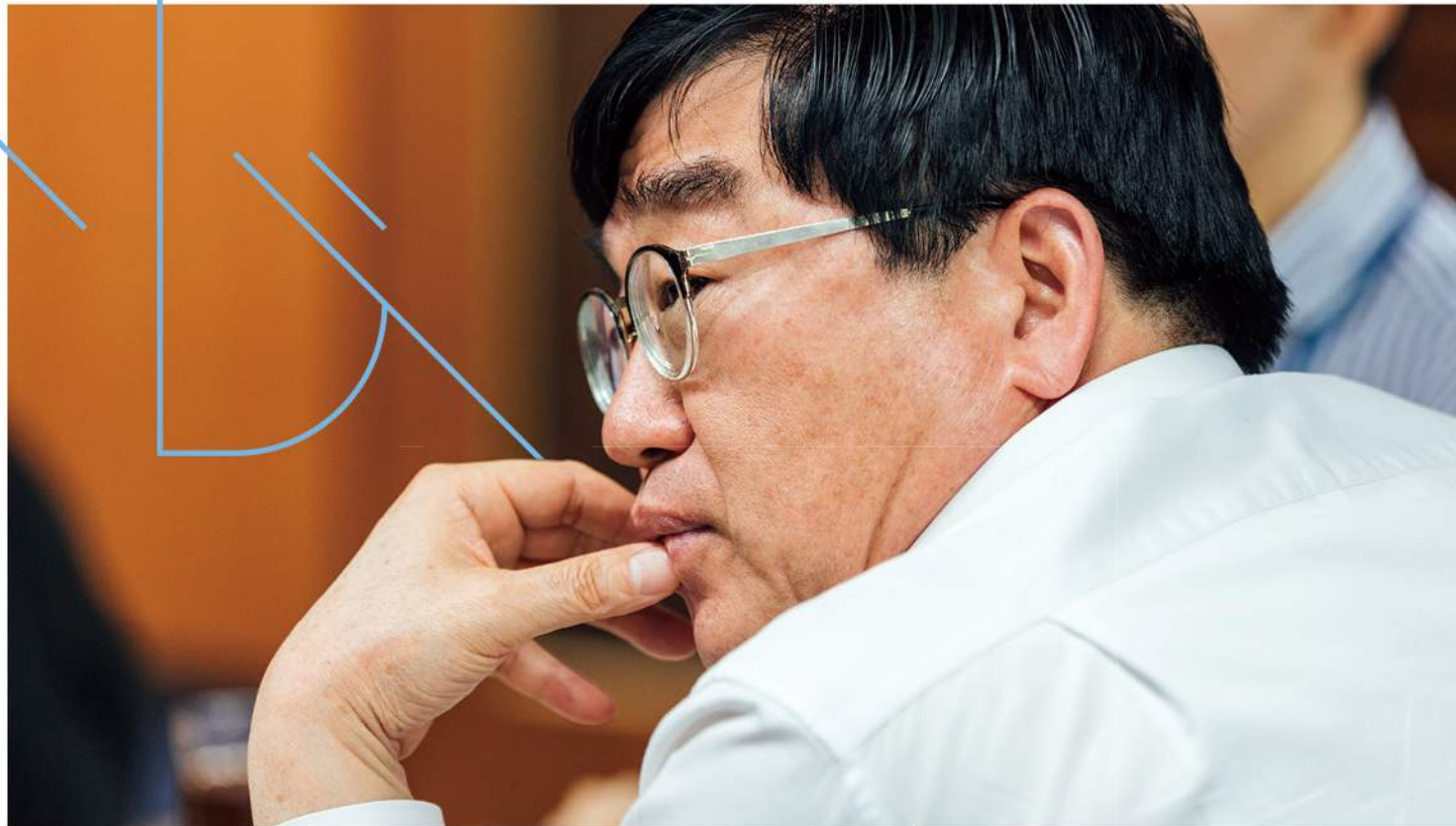
아직 리더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신을 낮추는 리더.
회사의 주인은 직원이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리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중심이 되어주려는 리더.
플랜트사업본부 김광호 본부장을 만났다.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나의 역할

김광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의 집무실은 항상 열려 있다. 만약 목요일 오전에 본부장실을 찾는다면 주니어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김 본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격주로 목요일마다 주니어 직원들과 미팅을 갖는다. 사실 집행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평일 오전을 주니어 직원들과의 만남에 할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김 본부장이 이 만남을 고수하는 이유는, 진정한 혁신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다. 그가 세운 플랜트사업본부의 올해 목표는 크게 '수주 2조6,300억 달성'과 'Zero LTI(Lost Time Injury)' 두 가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데, 이것은 본부장 개인의 의지나 독불장군식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려면 먼저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직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는 팀별 워크숍이나 타운 홀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오늘 주니어 미팅도 그 일환인 것이다.

사실 경영진과 직원의 만남이라고 하면, 만남을 가장한 상급자의 훈화 말씀 시간이라고 지레짐작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김 본부장은 이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듯하다. 내 의견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직원이 제 생각을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말을 자르거나 생각을 앞질러 예단하는 일도 없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가 시종일관 보여준 경청의 자세는 직원들로부터 진심을 도출시킨다. 혁신을 이뤄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 "가끔은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혹자는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이 정말 고마워요.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변화, 조직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가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는 '배려와 존중'은 짧은 만남만으로도 쉬이 느낄 수 있다.

“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뢰란 배려와 존중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
 김 본부장의 도덕적 품성은 단지 개인의 미덕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서도 유리한 자산으로 작용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사내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나 클라이언트 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제리의
 CAFC(Central Area Field Complex) 오일 프로젝트를
 꼽는다. 이 프로젝트는 알제리 남동부 버킨 분지 지역에 하루
 3만2,000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석유중앙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로, 2013년 대우건설의
 수주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건설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다.

“현장 소장으로서 항상 발주처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발주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현장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뢰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쌓고 쌓아 올리는 끈기와 진심을 필요로 한다.
 덕분에 각 공정을 적기에 달성해낼 수 있었고, 그렇게
 발주처와 맺은 신뢰는 위기와 기회의 순간마다 빛을 발했다.
 발주처로부터 테스트 전에 PAC 준공 확인서를 미리
 받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전 양해를
 얻어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
 또한 알제리 CAFC 오일 프로젝트는 ‘무사고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발주처의 무한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발주처는
 ‘천만 시간 무재해 달성’에 감사하며 상패를 전달했다.
 이 상패는 그의 집무실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집무실에는 상패뿐 아니라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작품처럼 걸려 있다. “벌써
 27년이나 흘렀군요.” 김광호 본부장은 1992년 대우건설에
 입사했다. 강산이 세 번은 바뀌었을 긴 회사 생활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로 그는 ‘책임과 성실’이라는
 원칙을 꼽는다. “직원 시절 제 목표가 부장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자신감이 충만하다거나 주도적인 성격도 아니어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했더니
 지금의 자리에 와 있더군요.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예요. 여러분 중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개발해서 더 가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부장이기 전에 대우건설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보내는 그의 진심 어린 당부다.



김광호 본부장의 워라벨
 직원들에게 제 시간을 기꺼이 내주듯 김 본부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되도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양평,
 포천 등 근거리로 여행을 가서 맛집을 찾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또한 여유가 있으면 국내외 장거리 여행도
 즐기는데,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지로는 한국의 산사를
 꼽는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안동 병산서원 마루에서 밖을 보면 풍경이
 액자 속 그림처럼 담기는데 무척 아름답죠.”



안동 병산서원

“
 부족한 부분은
 개발해서
 더 가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write now!

易地思之 易地思之
 易地思之 易地思之

역지사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광호 본부장의 이 말은 공자가 실천 윤리의 근간으로 삼았던 ‘인(仁)’을 떠올리게
 한다. 무슨 일이든 처지를 바꾸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맹자의 ‘역지사지’도 같은 말이다.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둔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자.

배우세종에게

세종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신하들이 국가 정사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에 몰입해서 해결할 때 비로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종 리더십의 요체인 '집단 지혜(Group Genius)'다.

글. 박현모(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

철저하게 만들어진 지도자

“세종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종실록>을 꼬박 일 년 동안 함께 읽은 분의 말이다. 대기업에서 20여 년간 인재 교육을 담당해온 그분은 세종의 말과 행동을 보면 리더십 공부의 힘이 느껴진다고 했다.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대화를 통해 사람과 일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운 사람이 바로 세종이라는 것이다. 소년 시절 세종(충녕)은 뜻밖에도 결함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고자질쟁이 왕자였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국왕이 갖춰야 할 덕목인 군사에 무지했다. 그런 그가 ‘대왕’ 세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책이었다. 부왕 태종은 ‘충녕이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몹시 출거나 더운 날씨라도 밤새워 글을 읽는다’고 말하곤 했다. 세종이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은 중국의 경전과 역사였다. 패권국인 명나라 황제와 관료들의 지식 수준과 당시의 글로벌 매너인 유교 예법에 달통해야만 조선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은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명나라 사신들의 무례와 황제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사대 외교를 했다. 그런데 세종의 이른바 지성사대(至誠事大)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익, 즉 여진족 토벌과 북방 영토 개척이라는 조선의 대외정책을 명나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었다. 세종은 국가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대 외교를 펼친 전략가였다.

세종,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다

지성사대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배경에는 세종 정부의 활발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 세종은 말끝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하여 신하들을 대화에 초청하곤 했다.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치 그림을 벽에 걸면서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위치가 바른지를 묻는 것처럼 끊임없이 의견을 구했다. 특히 복합적 국면으로 이뤄져 있는 외교 사안일 경우 더욱 치밀하게 묻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라’는 세종의 습관적 어투는 외교 실수를 막기도 했다. 때는 1432년 봄, 명나라 황제가 세종에게 칙지(勅旨)를 내렸다. ‘소 1만 마리를 만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다. 세종은 소가 우리나라에서 희소하게 나는 동물로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농사에 가장 긴절(緊切)한 것이지만,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하면 두 나라의 우호관계가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징옥 등은 요구한 양의 반수만 중국 물품과 무역하여 진헌하고 그 나머지는 면제하여주기를 주청하자고 제의했다. 최사강은 지금 반수를 바치고 나머지는 번식되기를 기다려서 진헌하겠다고 주청하자했고, 맹사성 등은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바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들은 세종은 칙지(勅旨)를 다시 꼼꼼히 읽어본 다음 “지금 황제의 뜻이 자세하고 간곡하여 사제가 그만둘 수가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맹사성 등의 의견(‘전부 보내기’)에 힘을 실었다. ‘지금 소를 갖추어 바치는 일이 비록 어렵기는 하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만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협오하는 틈’이 생기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세종의 판단이었다(<세종실록> 14년 5월 28일).

세종의 리더십,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조선 조정은 같은 해(1432년) 7월에 소 6,000마리를 여섯 운으로 나누어 요동으로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전부터 소의 생산이 심히 적고 또 몸집이 작으나,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함에 사리상 감히 어김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전국의 소를 모아서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도 동봉해 보냈다(<세종실록> 14년 7월 11일). 명 황제의 요구를 수용하되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간곡하게 적어 보낸 것이다. 세종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가 주효했다. 그해 10월에 중국 황제는 ‘조선의 탁월한 현왕(賢王)의 판단에 감복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소는 ‘현재까지 보낸 것’으로 그칠 것이며, 앞으로는 사신들이 ‘명령된 요구’를 하더라도 황제의 허가 없이는 주지 말라고 했다(<세종실록> 14년 10월 6일). 조선의 큰 골칫거리인 사신들의 잡다한 요구를 물리칠 근거를 마련해준 ‘외교적 성과’였다. 세종은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비롯해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위의 신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 조선의 국방과 안위가 중원 대륙의 패권국과의 관계 형성에 달려 있다고 본 세종은 중국 황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사전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집단 지혜(group genius)’를 통해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려 한 것이다. 세종의 실용 외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재위 기간에 영락제, 홍희제 등 무려 다섯 명의 황제가 바뀌고 수많은 사신과 국서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중국 사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시키고, 그 파견 횟수를 급격히 감소시켜 민폐를 줄인 것 역시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였다. 세종이 독자적인 문자와 시간,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칠정산>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명나라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현모

글을 쓴 박현모는 세종, 정조 등 왕과 재상의 리더십 연구 분야의 권위자다.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정조(正祖)의 정치사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18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정조와 세종, 정조전과 최명길 등 우리 역사를 빛낸 왕과

재상들의 리더십을 연구했다. 현재 여주대학교 교수 및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세종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정조평전> <세종처럼> 등이 있고, <몸의 정치>와 <휴머니즘과 폭력>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국대전의 정치학’ 등 8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QR코드를 스캔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오디오 콘텐츠로도 만나보세요!

IRAQ tmi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용한 상식을
한데 모았다. 대우건설이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라크에 관한 생활 상식과
문화 지식을 만나본다.



인류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을 보유한 나라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90km 지점에 자리한
고대 도시 바빌론. 이곳에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원형과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다.
인류가 남긴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바벨탑이 현재 이라크에 남아
있는 신전 건축물인 '지구라트'일 것이라고 말한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의 성곽 옥상에 조성된
인공 정원인 공중정원도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맥주 레시피를 만들었던 나라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맥주는 이라크에서
시작됐다. 금주가 율법인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와인과 함께 인류 최초의
술 중 하나인 맥주는 고대 수메르인이 살았던
이라크에서 출발한다. 약 4,000년 전의
맥주 레시피가 기록된 점토판이 이라크의
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맥주 양조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다. 특히 원시 맥주는 향아리에 담겨
빨대로 마시는 것이 맛있었다고 하니
맥주의 참맛이 궁금하면 도전해보자.



<아라비안나이트>의 무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으로 잘 알려진
<아라비안나이트>의 뼈대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설화였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이야기가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의
설화가 덧붙여졌고, 1001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설화 <아라비안나이트>가 완성됐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에서 도둑들이 보물을 숨긴 동굴의 모티프가 된
장소부터 도둑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3개의 샘 등
설화 속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보디랭귀지
이라크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약수를 청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좌식 문화가 익숙한
아시아권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신발 밀창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신발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 밖에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계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와 쿠르드 국기를 사용하는 등
준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쿠르드계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설픈 아랍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한 인간관계
널리 알려진 속담 '알-아줄라 민 앓-샤이탄'은
'서두르는 것은 악마가 부추기기 때문이며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뜻이다. 이라크 바이어 대다수는
약속 시간 관념이 부족하다.
이 나라에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 오히려 마음이 조급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이라크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서두르고 재촉하는 사람과 도모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고 단정짓는 편이다.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청률 80% <허준>앞으로 시작된 한류
이라크에 "드라마 <허준>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테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12년 방영 당시 <허준>의 인기는 대단했다.
시청률이 무려 80%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한 병원에 '허준 박사 병동'까지 생겼으며 주변배우
전광렬은 영부인의 초청을 받아 이라크를 방문할
정도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라크의 한류는
케이팝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바그다드 대학교에서
케이팝 페스티벌까지 열렸다고 한다.
케이팝 영향력의 정점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이라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이라크의 간판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
상세히 보도해 큰 화제를 모았다.



DAEWOO E&C project

건설 한류를 이어가다 이라크 알포 방파제 건설공사

이라크 남부 바스라(Basrah)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 기온은 1921년 7월,
바스라에서 관측된 58.8℃가 공식 기록이다.

바스라의 알포(Al Faw) 지역에는
오늘도 준공을 위해 분주히 돌아가는 우리
현장이 있다. 바로 이라크 알포 방파제
현장이다. 이라크 항만청에서 발주한
이 공사는 이라크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는 알포 지역에 신항만을 조성하는
사업 중 일부로, 서측 방파제와 보조 방파제,
동측 방파제 선단부를 포함한
총 15.85km 길이의 사석 방파제를 건설한다.

그간 우리 현장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올 6월 준공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에도 직원들은 선글라스와 긴팔
작업복, 선크림으로 맞서며 작업을 이어갔다.
또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현지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아랍어 단어나 문장을 숙지하고
다니기도 했다. 공정의 효율성과 만조·간조가
있는 해상 공사의 특성으로 24시간 2교대
공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지 자재의 수급도
쉽지 않았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공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라크 AKKAS 천연가스 시설 공사에 이은
이번 공사를 통해 이라크 재건 사업에
큰 역할을 한 우리 회사는 또 한번 건설 한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

다리도
블록처럼 조립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어린 시절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
블록을 이용해 비행기나 로봇 등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가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에펠탑, 금문교 등
실존하는 구조물을 실물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조립식 블록 완구도 쉽게 볼 수 있다.
‘다리도 블록처럼 조립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대우건설이
개발한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상상이 현실이 된 블록 공법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은 바닥판, 거더, 교각 및
방호벽 등 교량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를 블록처럼 만들어
일부 또는 전체를 조립해 완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교량 공사의 기술적 한계점과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교량 건설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근래까지 교량 공사는 경제성, 제한적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현장 작업 중심으로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자의 근로
환경이나 안전사고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품질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
공사 기간도 비교적 길었다. 이렇듯 현장에서 부재를
제작하는 방식 대신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부재를 만들어
현장에서 크레인 등의 장비로 조립해 시공한다면?
구조물의 품질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이
단순해져 작업자의 위험 요소도 크게 줄어든다. 특히 도심처럼
교통이 혼잡하거나 산악 지형과 같이 위험한 지역에 교량을
건설할 경우에는 조립식 교량 가설이 더욱 효율적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사전에 예측하고 1990년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개발을 시작으로 거더, 방호벽 및 교각에 이르기까지 교량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 전체를 블록으로 만들고 조립해
시공하는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을 완성했다.
대우건설은 이 시스템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 근처의
고속도로 시험 도로 구간에 위치한 삼성교에 국내 최초로
시공해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한 이후 청주육교와
유성IC교 등의 고속도로 개량 공사 및 긴급 보강 공사,
오륜교와 면목교 등 교통혼잡 구간의 신설 및 보강 교량 공사에
순차 적용해나감으로써 조립식 교량 공법에서
국내 선두 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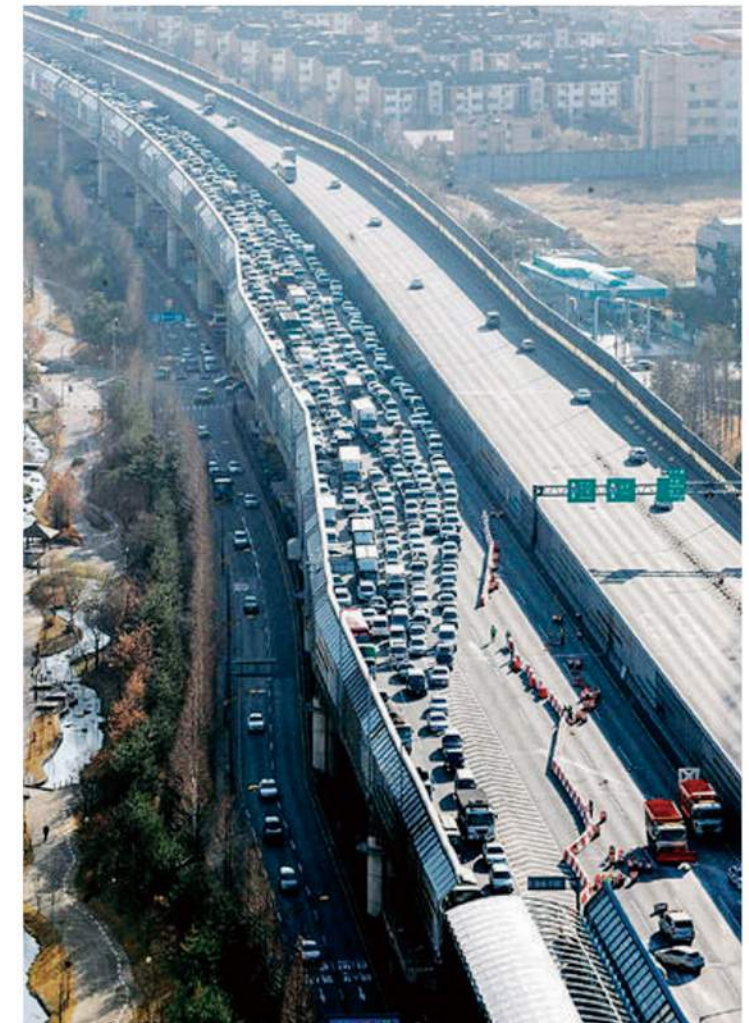
국민 불편 해소하는 선택 아닌 필수 공법

대우건설의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이 제대로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다. 때는 2010년 12월. 국내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중동IC 근처에서 하부 공간을 불법 점유한 탱크로리에서
발화한 대형 화재가 부천고가교 일부 구간을 심각하게
손상해 장기간의 교통 차단 및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기본적인 손상 현황 및
정도 파악과 더불어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조속한 재개통
방안이었다. 하루 자동차 통행량만 약 20만대에 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 불가로 발생하는 물류 손실
비용이 하루에 약 18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수도권 교통의
핵심 구간이고, 사고 발생 시기가 겨울의 한복판인 12월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손상 구간의 철거, 보수·보강, 일부 구간의
교체에 대한 기술 검토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공기 단축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상황, 복구 시기가
추운 겨울이라는 난관 속에서 조립식 교량 공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당사에서 개발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적용한 조립식 가설 공법은 사고 후 100여 일 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개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당초 계획된 공사 기간을 약 30일 단축한 결과로
조기 개통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간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내 재난 긴급 복구 공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천고가교

공사 위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판교 지점 86.8km)
적용 상황.
탱크로리 화재로 인해 손상된 도심지
재난 교량의 긴급 복구공사
현장 특징.
도심지의 제약 조건을 극복한 국내
최초 바닥판 전진가설 공법 적용 /
공기 단축을 통해 극심한 교통 불편과
사회적 손실 비용 최소화
교량 형식.
강박스 거더교
시공 규모.
교폭 38.6m, 연장 76.0m
공사 기간.
2011년 1월 — 2011년 2월
바닥판.
폭 9.45m, 길이 1.98m,
두께 25cm





조립식 교량 공법을 이용한 급속시공은 이와 같은 비상 상황뿐만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량의 신설, 기존 교량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가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필수적인 공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내구성이 높아져 교량의 수명이 길어지며, 공사 중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당사에서 개발한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100개의 신설 교량과 노후 교체 교량에 적용되었다.

교량 분야 건설 자동화 시대를 주도하다

최근 국내 건설 분야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SOC 건설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며, 이 움직임의 핵심 내용으로 첨단 건설 산업을 위한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공장 사전 제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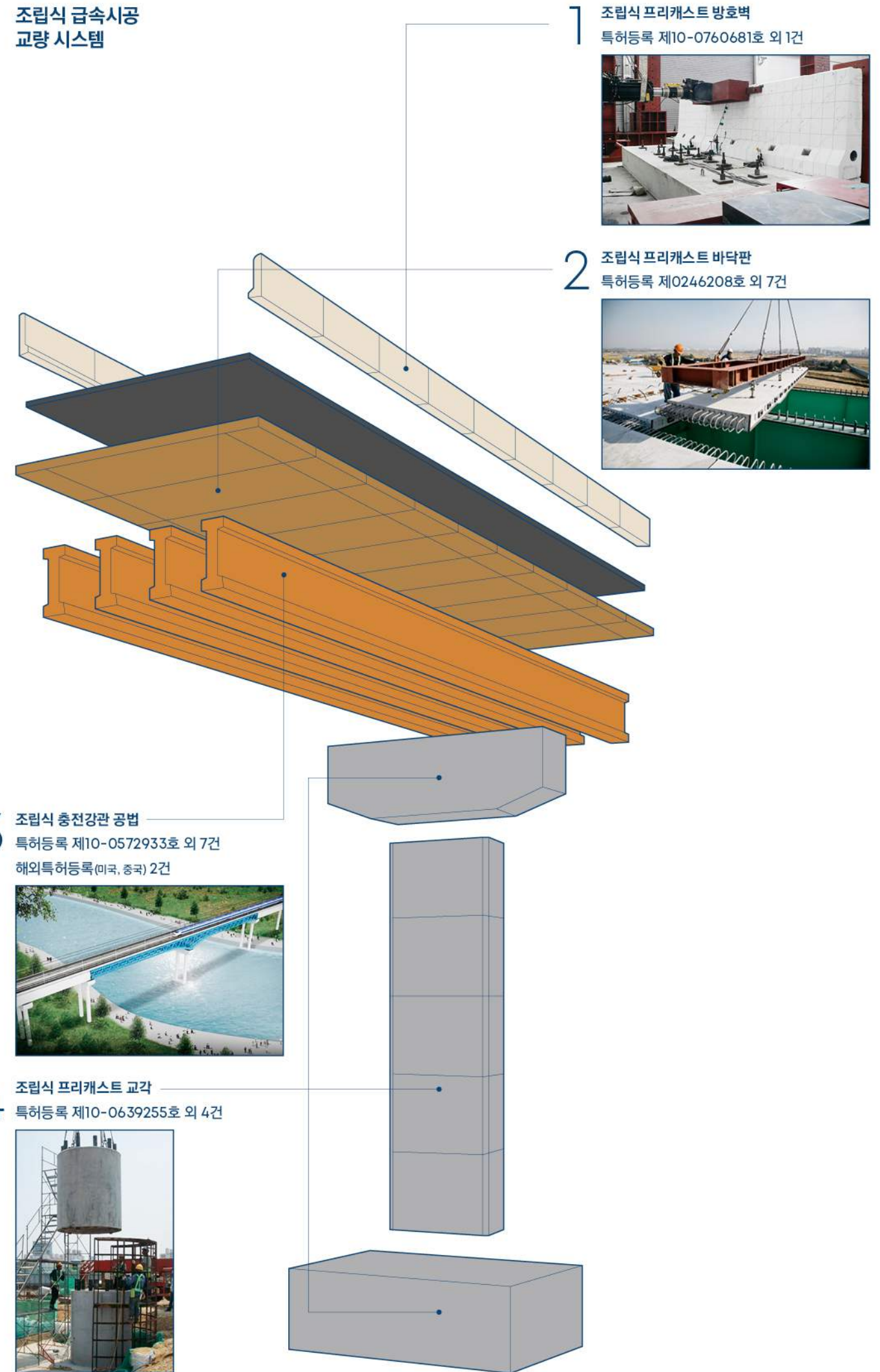
통한 모듈러 건설 활성화다. 모듈 정밀 제작, 모듈 간 조립, 시공 자동화 기술 등으로 다양한 용도의 구조물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건설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더해 모듈러 유닛 정밀 설계, 모듈 제작용 자동화 시스템 등 자동화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센서를 활용한 정밀 제어 시공 등 빠르고 효율적인 조립 시공을 구현함으로써 건설 자동화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량 전체를 모듈러 시스템화하는 국책 연구 과제인 모듈러 교량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모듈러 교량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보다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적 교량 개발을 목표로 한 ICT 교량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 책임 연구 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첨단 건설 산업을 위한 건설 자동화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업계 선두 주자로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사업을 통해 건설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토 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





self test

일자목 증후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어깨와 목 주위가 자주 뻣근하다.
- ☐ 등이 굽어 있다.
- ☐ 쉽게 피로하고 두통이 있으며 어지럼증을 느낀다.
- ☐ 잠을 자도 피곤하고 뒷목이 불편하다.
- ☐ 목을 뒤로 젖히면 심하게 아프다.
- ☐ 옆에서 보면 고개가 어깨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

이제 일자목 증후군에서 탈출하자!

일자목 증후군이란 C자 커브 형태의 목 경추가 일자로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일자목이 되면 목뼈가 받는 충격에 더욱 약해져 조금만 피로해도 목덜미가 빠근하거나 뻣뻣해진다. 또한 두통과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일자목으로 인해 만성 통증, 만성 피로가 생기면 업무를 지속하는 시간과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일자목 증후군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늘면서 장시간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불량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일자목 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 다행히 일자목 증후군은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일자목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습관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를 볼 때 턱을



최기호 과장이 알려주는
오피스 스트레칭 노하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풀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내미는 습관, 방바닥에 신문이나 책을 놓고 머리만 바닥을 향하고 읽는 습관, 차려 자세로 지나치게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머리와 목 높이보다 높은 베개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자목 증후군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일자목 증후군 예방법이다. 우선 평소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10~15도 아래로 보도록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컴퓨터 모니터가 시선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면 모니터 아래에 책 등을 괴어놓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거치대를 사용하거나 팔을 들어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방지한다. 또 의자 등받이에 쿠션을 대어 등과 의자가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피트니스] <운동강조> 목 뻣는 '일자목' 고 고개



최기호 과장
이번 호 '직장의 神' 칼럼에 참여한 대우건설 최기호 과장은 사내에서 유명한 '몸짱 직원'이다. 군 제대 후부터 이어진 꾸준한 운동으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해왔다. 어느덧 마흔 살, 올해 그는 도전과 열정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했다. 닭가슴살을 주식 삼아 운동에 매진한 끝에 지난 4월 6일에 열린 2019년 피트니스스타 스포츠모델 대회에서 젊은 피들을 제치고 2등을 수상했다.

3

목 옆 스트레칭



- 1 — 오른손을 들어 머리 위를 지나 왼쪽 귀를 손가락으로 감싼다.
 - 2 — 손가락이 아닌 손목과 팔꿈치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준다. 반대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린다.
- 5초 동안 멈췄다가 처음의 위치로 돌아간다. 좌우 30회 반복한다.

직장의 신 TIP

목을 당길 때 귀와 어깨가 만나는 느낌으로 내려주고,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목 뒤로 젖히기



- 1 — 마주 댄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갖다 댈다.
 - 2 —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밀어 들어 올리면서 목을 뒤로 젖힌다. 목에서 힘을 빼고 시선은 최대한 뒤쪽을 쳐다본다.
- 5~10초 동안 멈췄다가 처음의 위치로 돌아간다. 30회 반복한다.

직장의 신 TIP

숨을 마시며 목을 뒤로 젖힌다. 이때 어깨가 앞으로 말리거나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우건설 최기호 과장이 알려주는 하루 10분 오피스 스트레칭

1

목 스트레칭



- 1 —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쪽에서 깎지 낀다.
 - 2 — 양팔을 접으며 머리를 돌려 뒷목을 스트레칭한다.
- 5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처음의 위치로 돌아간다. 30회 반복한다.

직장의 신 TIP

머리는 뒷목에 자극이 올 정도로만 내리고, 머리를 내릴 때 숨을 내린다.

2

목 45도 스트레칭



- 1 — 왼팔을 들어 머리 위를 지나 오른쪽 귀 뒷부분에 손바닥을 댈다.
 - 2 — 손목과 팔꿈치의 힘으로 45도 방향으로 머리를 지그시 돌려준다. 반대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린다.
-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처음의 위치로 돌아간다. 좌우 30회 반복한다.

직장의 신 TIP

귀와 어깨가 멀어지며 목 옆, 뒤가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5

앉아서 척추 펴 늘리기



- 1 — 척추 라인을 바르게 잡고 앉아서 양발을 모은다. 양손을 마주 대고 머리 위로 올린다.
 - 2 — 양팔을 귀 옆에 붙여 최대한 들어 올린다.
- 척추와 등 근육이 곧게 펴지도록 팔을 쭉 들어 올려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30회 반복한다.

직장의 신 TIP

상체를 늘릴 때 배를 내밀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아랫배는 숨 넣어둘 것.

6

앉아서 다리 꼬아 숙이기



- 1 — 척추 라인이 중심이 잡히도록 허리를 곧게 세워 반듯하게 앉는다.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로 올린다. 양손은 오른쪽 발목과 무릎에 댈다.
- 2 —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누르면서 상체를 숙이고 3~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다리를 바꿔서 좌우 30회 실시한다.

직장의 신 TIP

상체를 숙일 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배꼽부터 닿는다는 느낌으로 숙여준다.

스스로가 풍경이 되는 도시

페즈

FEZ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아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이
모로코 페즈에 갔다.
글. 승효상 (건축가)



about the city

페즈
언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
비자. 무비자 입국 3개월 체류 가능
교통. 직항 없음. 스페인 세비아 공항을 경유하거나 스페인 남부에서 배로 이동

페즈는 모로코에 있는 도시로, 모로코 중앙 북부 산기슭의 페스강 연안에 위치한다. 모로코의 대표적인 고도로, 789년 이드리스 아본 압둘라가 건설하여 810년 아들 이드리스 2세 시대에 이드리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해 상공업도 발달했다. 현재 카사블랑카, 라바트, 마라케시와 함께 모로코 4대 도시로 손꼽힌다. 메디나로 불리는 옛 시가지는 세계 최대의 복잡한 미로로 알려져 있으며, 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양식을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여행의 기술>을 쓴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은 현실에서 만나는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견해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의 말이 옳다면, 여행은 도피 수단밖에 되지 않으며 일상을 증오로 물 뿐이어서 불건전하다.

내가 여행을 통해 얻는 첫 번째 유효함은 '진실의 발견'에서 비롯된다.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축적되는 환상이 있다. 저 멀리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사는 이들과 그들의 환경에 대해 읽고 들은 지식으로 생긴 상상인데, 이는 가공이라 거짓이기 쉬우며 그래서 힘이 없다.

건축은 현실의 땅을 디디고 선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통해 현장에 서서 그 건축의 실체를 보면서 내가 가졌던 환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다. 바로 진실은 현장에 있고, 그 실체에는 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의 얼굴은 늘 광채를 띠게 된다. 나는 종종 직업을 핑계로 여행길에 오르기도 하지만, 내 건축이 새롭게 되기 위한 절실함이 나를 늘 길 위로 내모는 게 사실이다. 건축이 땅에 새기는 삶의 기록임을 아는 한 이 땅에 새겨진 수많은 기록들을 보아야만 한다. 땅을 보지 않고는 환상만 남게 되니, 현장을 보지 않는 한 그 건축이 이룬 시간의 결은 체득될 수 없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좋은 도시'

나치의 추적을 건디다 못해 피레네산맥의 작은 마을 포트부에서 자살한 발터 벤야민은 특별히 도시에 대해 많은 사유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율리시스> 읽기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이유인즉, 책 어디에서 읽기를 시작해도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현대도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그는, 어떤 도시의 어느 장소에 있을 때 그 모퉁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전체를 알 수 있게 하는 곳이 좋은 도시라고 하였다. 무슨 소린가. 부분만으로 도시 전체를 알 수 있으려면 그 부분 자체가 도시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의 모든 부분들이 다 독립적이어야 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는 말이다. 기능적 부분이 확연한 현대의 도시, 즉 중심과 변두리의 차이가 확실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역별 용도가 뚜렷하여 서로에게 종속되는 도시에서는 난망한 일이다. 물론 봉건시대에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일 중심의 도시에서도 부분들의 독립이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벤야민이 말한 그런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모로코의 페즈(fez)다.

787년 이슬람 세력권의 분열로 시아파를 이끌던 무함마드의 후손 술탄 이드리스가 수니파의 압박을 피해 이주하여 이드리스 왕조를 창건한 곳이 바로 이 모로코의 첫 번째 이슬람 도시 페즈다. 1,200년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천 년의 고도이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모로코 문화와 종교 지식의 중심지로서 영광을 잃지 않는 도시요, 모로코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하는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859년 이곳에 세워진 알카라윈 대학이라면 이 도시의 내공을 짐작할 수 있을 게다.

아틀라스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세워진 이 도시는 14세기에 절정의 황금시대를 이루기까지 줄곧 번성하였다. 많은 사원이 세워져 종교적으로 성지가 되었고, 스페인으로부터 학자들을 유치하고 대학을 세운 이후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되었으며, 지리적으로도 교역의 중심지여서 중요한 상업도시로 변창하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미 12만의 가구가 살았고,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 수만 3,500개에 달할 만큼 세계적인 문명도시였다.

이 도시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초의 도시인 페즈엘발리(Fez el Bali)와 그에 이어져 왕궁과 사원 구역을 형성한 페즈엘예디드(Fez el Jedid)가 구도시(메디나, Medina) 지역이며, 프랑스 식민시절에 지은 유럽풍 신도시가 덧대어져 전체 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페즈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역시 가장 오래된 메디나 지역이다.



수많은 작은 도시가 모여 이룬 하나의 도시

페즈는 지금도 작은 도시가 아니다. 오늘날도 100만 명이 사는 모로코 제2의 도시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육과 교역의 중심지다. 그럼에도 역사도시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벤야민의 언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즈의 항공사진을 보면 작은 마당을 중심에 둔 ㅈ자, 모자 집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다. 서양 도시에 흔히 있게 마련인 중심축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며 중앙광장이나 중앙공원, 중앙로도 없다. 사실 '중앙'이라는 글자를 가진 도시구조는 봉건시대의 유물이다. 차량이 위주가 아니니 곧장 가는 길은 하나도 없고 그 폭도 변화무쌍하다. 싹뚝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들은 때로는 좁고 때로는 어둡지만 어떤 곳은 불현듯 넓고 밝아 노천시장으로도 쓰이고 더러는 아이들의 놀이터나 마당으로 혹은 공동체의 집회장으로 쓰인다. 길은 그들에게 그냥 통행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기억을 만들며 서로를 엮는 귀중한 공공영역이다. 이들의 종교는 알라 밑에 모두가 평등함을 믿는 이슬람이다. 그러니 중심과 변두리의 개념이 없으며 계급이나 특별함에 대한 의식이 없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장소의 등급을 나타내는 구분도 없고, 기념비적 랜드마크도 없어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모여 있다. 가만히 보면 대개 열 채 남짓한 집들이 뺑뺑이나 우물 같은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단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 크기와 형태로 반복되면서 전체 도시를 조직한다. 즉 수많은 작은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도시가 되어 있는 게 페즈다. 공동체 단위들과 각 집들이 서로에 대해 독립되어 있어, 부분이 전체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개체와 전부가 동일하다. 소위 프랙탈 구조(Fractal,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단일 중심의 봉건적 도시와 대척점에 있는 구조이니 다원적 민주주의 도시이며 바로 발터 벤야민이 그렸던 도시다. 모든 부분이 중심인 까닭에 한 부분이 무너진들 혹은 덧댄들 그래도 존속하는 도시, 이것이 1,200년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온 페즈의 비결이었다. 지속 가능한 삶. 우리 지자체장들은 사막 위에 급조된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느라 소란 떨지 말고, 이런 1,000년 도시에서 그 비밀을 배워야 한다. 십수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이곳을 또 가고자 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이라고 변한 게 하나도 없을 게 분명하다. 소란한 우리 땅에서 이 악물고 살아야 한 내가 오히려 변했을 터이니 변함없을 페즈에 투영된 내 자신이 궁금했던 것이다. 여행이란 대상이 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던가.



송효상
글을 쓴 송효상은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빈 공과대학에서 공부했다. 15년간 김수근 문하에서 일했고, 1989년 설립한 건축사무소 이로재의 대표다.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한 그에게 미국 건축가협회는 2002년 명예 펠로우의 자격을 부여했다. 같은 해 건축가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건축가 송효상전'을 가지기도 했다.

2008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활약했으며 2014~2016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를 역임하기도 했다.

모로코에서
온
편지

LETTER FROM MOROCCO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로는
전하지 못했던 마음, 이제 <대우건설인>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해보자. 첫 번째로
멀리 모로코 SAFI 발전PJ 현장에서 김훈 과장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도착했다.



항상 고마운
당신에게

여보, 잘 지내? 이곳 모로코는 이제 낮엔 햇볕이 따가울 만큼 꽤 무더워졌어. 한국은 완연한 봄이지?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에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네.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휴가 주기가 짧아져서 예전보다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지만,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게 가족인 것 같아. 출근길에 발전소 너머로 넓은 대서양을 볼 때면 항상 우리 가족 얼굴이 생각나는 걸 보면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던 PJ에서 원가 업무를 맡다 보니 회사에 신경을 쓴다고 집안일에 소홀했잖아. 그래도 당신이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우리 토끼 같은 아들, 딸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외로운 당신이지만 항상 밝고 열심히 지내는 모습 보면 나도 힘이 난단다.

회사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가끔 투덜대는 당신에게 이 편지가 이곳 생활을 전해주는 기회가 될 거 같네.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회식을 위해 가까운 스페인에서 삼겹살을 공수해 올 수 있을 만큼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생활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마주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거야. 내가 근무하는 곳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PJ야.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가서 '우리 아빠 발전소 만든다'고 자랑해도 될 정도로 발전소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대우건설에서 일괄 수행을 하고 있어. 규모도 역대급이야.

모로코 현지 전력의 2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 규모를 갖추고 있고, 공사 금액도 회사가 수행했던 단일 플랜트로는 역대 최고로 크지.

큰 규모만큼 작년 한 해는 도전의 연속이었어. 모든 직원들이 준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가기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장 직원 모두를 하루하루 피 말리게 만들었던 준공 지연도 있었고. 그래도 같이 해보자고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헤쳐나가다 보니 어느덧 공사 마무리에 이르렀네. 이제 발전소는 발주처에 인도되어 상업 운전엔 착수했지만, 마지막 준공 확인 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단다. 일부 잔여 공사로 귀일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졌지만, 이제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잔여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 얼른 일 마무리하고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게.

말수 적은 경상도 남자지만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 하늘 태양보다 더 크다고 자부해! 우리 아들, 얼마 잘 도와줘서 항상 고마워! 우리 딸은 빵 먹을 때마다 아빠 거 남겨놔서 고맙고! 모두 사랑해요. ♡

- 모로코에서 당신의 남편이



delivering for you



"커피머신을 사고 싶었는데
무엇을 살지 몰라서
고민만 하는 아내를 위해"
<대우건설인>이
김훈 과장님을 대신해
커피머신을 선물해드립니다.

홈퍼니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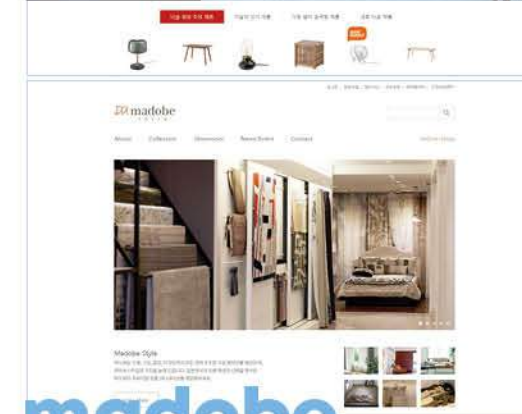
어디까지
아시나요?

HOME FURNISH- ING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명 홈족(Hom族)이 늘면서 홈퍼니싱을
취미 생활로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은 기분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준다. 반면 초보자들은
집 구조나 재료의 특성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실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아파트 도면을 찾아주는 서비스부터
1:1 컨설팅까지, 여섯 가지 셀프 홈퍼니싱
솔루션을 읽어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보자.

ikea.com/ms/ko_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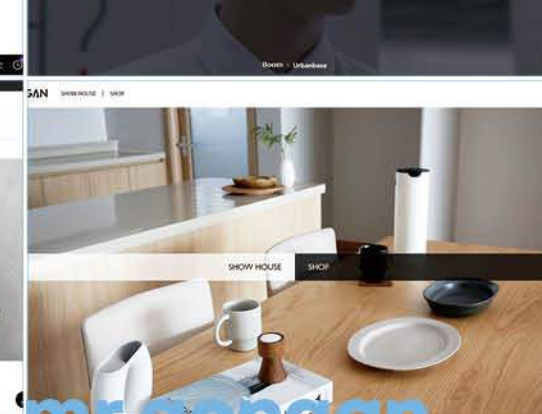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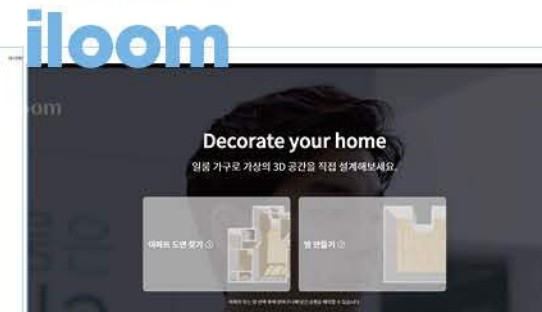
madobe
madobe.co.kr

ssfshop.com



williams-sonoma
williams-sonoma.co.kr

iloom.urbanbase.com



mr.gongan
mrgongan.com

#전문가조언 #1:1컨설팅

이케아

국내 홈퍼니싱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글로벌 브랜드 이케아는
수백 개의 소품을 통해 홈퍼니싱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홈퍼니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 찾기,
아이디어 구체화, 공간 측정 등
이케아에서 제공하는 7단계를 따르면
꿈꿔왔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일반 고객은 첫 1시간 5만원, 이후
시간당 1만원이다.

마도베

일본어로 '창가'를 뜻하는 마도베는
일본에서 온 홈 패브릭 전문
브랜드다. 커튼은 제작부터 가공까지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1:1 컨설팅을
제안해주는 방식이다. 일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에게 지도를 받은 전문
스테파가 스타일링을 제안해주고
전문가가 직접 공간을 방문해 실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홈퍼니싱전문브랜드 #취향저격아이템

그라니트

북유럽풍 스웨덴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실용성, 품질, 아름다움에
근간을 둔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인테리어, 주방, 가 등
총 8개 주요 카테고리의 오리지널
북유럽 디자인 상품을 판매한다.
유럽의 엄격한 인증을 통과한
자연친화적 상품을 선보여 도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윌리엄스 소노마

1956년 설립된 미국 1위 홈퍼니싱
기업으로 주방용품, 가구, 침구
등 7,0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윌리엄스 소노마의 메리트는 단연
주방용품이다. 온라인은 키친웨어를
중심으로 판매하며, 주방용품계의
샤넬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주방
브랜드부터 200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해외
직구로만 접할 수 있었던 상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3D시뮬레이션 #실패용제로도전

일룸

일룸 홈페이지에서 '공간제한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룸 가구로
가상의 3D 공간을 설계해볼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도면
찾기부터 가구 배치, 인테리어, 견적서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VR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가상의 3D 공간을 직접
설계해보는 경험을 통해 홈퍼니싱에서
한 단계 진화한 홀디자이닝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

미스터공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공간을
직접 방문해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홈퍼니싱 제안을
받아보자. 미스터공간은 증강현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플랫폼으로,
꾸미고 싶은 공간을 사진 찍어서
웹을 통해 미스터공간에 보내면 사진
속 공간에 어울리는 홈퍼니싱을
제안해준다.



대우건설인 +

everything has changed

푸르지오의 이유 있는 변신

푸르지오가 '본연'의 모습으로 새롭게 론칭했다. 이를 기념해 지난 3월 28일, 달라진 푸르지오를 공개하는 브랜드 리뉴얼 론칭 행사가 열렸다. 1년 넘게 정성 들인 결실을 처음 선보이는 순간이자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관련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집과 정성은 대단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척 성공적이었다.



#1 artistic touch

'본연'의 가치를 엿보는
특별 전시

론칭 행사장으로 향하던 참석자들의 발길이 1, 2층에 마련된 아트 갤러리에서 여지없이 멈춘다.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푸르지오 리뉴얼 기념 특별 전시가 마련된 것. 이번 리뉴얼을 총괄한 이석우 디렉터를 비롯해 김도현 공간디자이너, 김진식 작가, 서정화 작가, 철퍼원 등이 푸르지오가 새롭게 추구하는 'Natural Nobility'를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본연이 가진 고귀함'이라는 푸르지오의 새로운 철학을 다양한 아트 피스와 라이프스타일 오브제로 형상화한 결과물은 참석자들에게 푸르지오의 변화를 기능하고 또 상상하게 하는 흥미로운 단초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나무, 돌 등 물성을 살린 작업들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 즉 푸르지오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특별 전시를 통해 '뉴 푸르지오'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득 품은 참석자들로 행사장의 열기가 시작부터 뜨거웠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이무송·노사연 부부, 톱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푸르지오 광고 모델 황소희 등 유명인들과 인플루언서, 주요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을 포함한 수많은 VIP들이 참석해 변화된 푸르지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변화에 대한 공감대 높인 특별한 자리



드디어 본행사가 시작했다. 김형 사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론칭 행사는 푸르지오의 새로운 BI, TV CF, 준비 영상 등을 선보이며 푸르지오가 추구하는 변화의 철학과 지향점을 강렬하게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으로, 감춰져 있던 푸르지오 BI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에서 큰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제 구체적으로 푸르지오의 리뉴얼 스토리를 들어볼 차례. 총괄 디렉팅을 맡은 SWNA의 이석우 디렉터가 무대에 섰다. 이 디렉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이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과 세련된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를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물에서 확장해 브랜드, 공간까지 통합된 관점에서 푸르지오를 재발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2 party together



달라진 푸르지오는 ‘나와 소중한 내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모토로 한다. 이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자 최근 방송 활동과 다양한 강연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학 박사 김경일 교수의 토크쇼가 마련됐다. ‘우리가 몰랐던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김 교수의 강연은 대우건설 임직원들과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집, 가정은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말이 깊은 울림을 전했다. 푸르지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주거 서비스와 더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번 리뉴얼 론칭 행사 역시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아트 전시, 인문학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이 달라진 푸르지오의 비전과 철학을 가까이에서 공감하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공사 수주

조달청에서 발주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연결 수로와 수문 1개소, 보도교 2개소, 단지 조성 및 조경 공사 등을 건설하며, 착공 후 33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지난 4월 28일,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는 10만 5,163.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5개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수지파크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3월 28일, 수지파크푸르지오 현장은 용인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23층 5개동, 아파트 43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삼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현장 준공

지난 4월 24일, 역삼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현장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7층-지상 18층 1개동, 오피스텔 736실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 알포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수주

이라크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이라크 알포(Al Faw)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알포 지역에 조성되는 신항만 사업 중 컨테이너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위한 총연장 4.5km의 가호안 조성 공사로, 착공 후 24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지웰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3월 26일, 세종지웰푸르지오 현장은 세종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세종시 다정동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에 위치한 이 현장에는 지하 2층-지상 35층 3개동, 아파트 190세대를 포함해 부대 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리비아 신규 발전소 공사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3월 20일, 리비아 전력청과 웨스턴마운틴발전소 450MW 복합 화력 신규 건설공사와 관련해 본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 본 공사는 기존 가스터빈발전소에 폐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와 스팀터빈을 설치하는 증설 공사다.



카타르 공공사업청장과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22일, 본사에서 김형 사장과 카타르 공공사업청의 사드 알 무한나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사드 알 무한나디 청장은 회사가 카타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링 고속도로 공사의 공정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공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CEO 안전 점검 실시

지난 4월 17일, 과천푸르지오아울림라비엔오 현장에서 CEO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 사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Safety First'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제2차 현장소장회의 개최

지난 4월 26일, 각 사업본부의 '2019년 제2차 현장소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소장회의에서는 각 사업본부의 현장별 현황 보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입 사원 부모님 초청 행사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직노협이 주관하는 행사 '꽃보다 귀한 그대'에 신입 사원 부모를 초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40명의 부모는 본사와 신사옥, 셔밋갤러리, 기술연구원, 하남 테크노밸리 현장 등을 견학하며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6기 발대식

지난 5월 3일,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6기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16기는 5개월간 리뉴얼 푸르지오 홍보와 환경 개선 CSR 활동 등을 맡으며 회사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는 건설업계 최초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으로 지난해까지 총 15기(615명)를 배출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4월 17일, 마포구 일대에서 열린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주택건축사업본부와 기업가치제고본부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노후 주택의 벽지 제거, 천장 도배, 단열 작업, 장판 교체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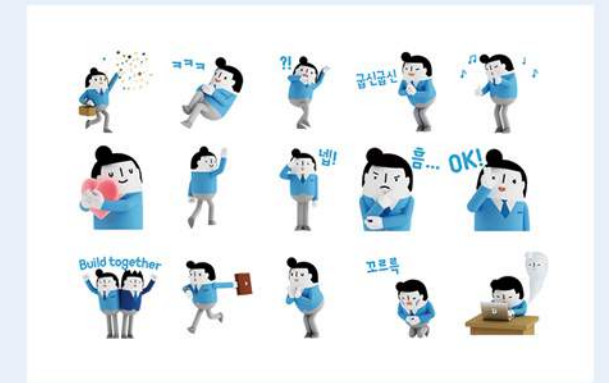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금융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25일, 본사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금융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회사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가진 강점을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 오픈

지난 4월 24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 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가 공개됐다.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발행되던 웹진을 최근 동영상 매체 활용 경향에 맞춰 영상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일종의 유튜브 영상 매거진이다. 정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며, 주택 및 아파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낼 계획이다.



카카오톡 정대우 이모티콘 시즌2 배포

회사가 기업문화 활성화를 일환으로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한 캐릭터 모델인 '정대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즌2를 제작했다. 정대우 이모티콘은 움직이는 스티커 이모티콘 16종으로 임직원들에게 18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1등 드롭기 토스터



설계관리팀 김형진 대리
저와 대우건설의 모든 임직원,
제 주변에서도 기대와 관심이 컸던 푸르지오
브랜드 리뉴얼 스토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좋았습니다. 기존의 친환경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귀함, 여유로움 등을 더해
최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저는 플랜트본부
직원이지만 대우건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푸르지오의 변화를 이번 사보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어 주변에 널리 알리고
애사심도 가져볼까 합니다.
New 푸르지오, New 대우건설
파이팅입니다!

2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기계설계팀 한영호 대리
‘복고 콘셉트 사진 촬영 체험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옛 추억에도
잠겨보고 아내, 딸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동료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우건설 임직원의 일상 이야기를
담은 칼럼을 많이 실어주세요.



포일센트럴푸르지오 현장 강상민 사원
‘공간 에세이’ 칼럼에서 프랑스인이
죽은 자를 위해 큰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제일 재미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문화,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좋았네요. ‘프랑스인들은 80세나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린 아직 젊고
창창합니다. 큰 꿈을 펼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팍팍 되었습니다!

3등 기프티콘 2만원 상당

이진희(해외PJ심의팀 조규태 대리 부인)
‘How to’ 칼럼에 남편의 인터뷰가 실린다고
하여 사보가 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우건설의
뉴 비전을 달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커뮤니케이션팀 박현아 대리
‘알지 못했던 나라 오만 TMI’가
재미있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지’, ‘흠먼지 뒤덮인 건설 현장’,
‘갈색 나라’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오만도
참 매력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칼럼대로 알지 못했던
나라를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생기획팀 백영명 대리
‘생활의 기술’ 칼럼이 깨알 재미를 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런 기술을 누가 알려줄 것이며,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게 깨알 상식도 얻고 재미도 느낀
칼럼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02-2288-1883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 씨켓 음식물 처리기
2등(2명) —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 기프티콘 2만원 상당

광고해드립니다

건설회사 세무

“

건설회사 세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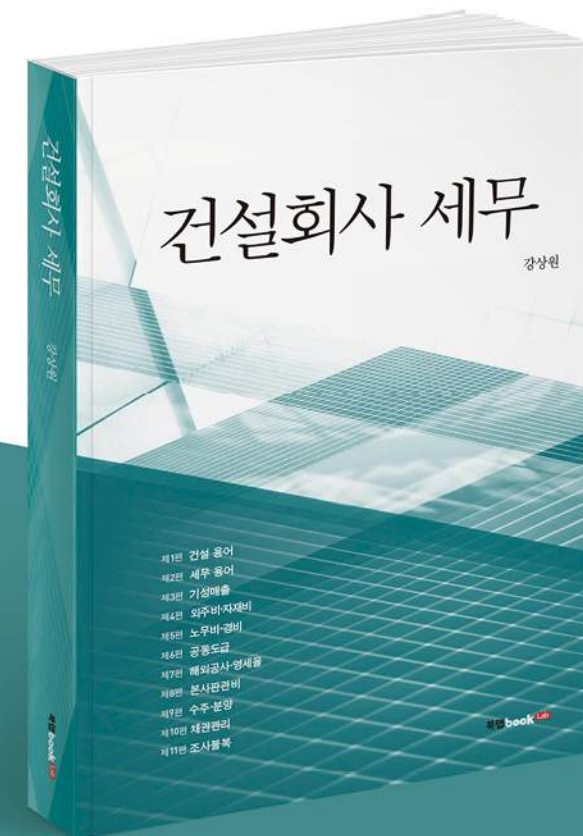
실전 중심, 실무 중심의
지침서

건설업 경험이 풍부한 저자의
지식과 경험 총망라

실무자라면
꼭 읽어볼 만한 책

동 업계 세무 실무자들의
극찬

”



대우건설 자산관리팀 강상원 과장이 집필한 <건설회사 세무>가 출간했다.
대우건설에서 10년간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필요한 세법 지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선보였다. 건설업이 복합적인 산업인 만큼 건설업의
세무 회계 또한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수주산업이자 제조업이며 금융업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모른다면 세법 전문가라도 실무를 진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도 답은 있기 마련이다. 강상원 과장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건설회사 세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건설업 세무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사람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동 업계 종사자들은 이 책이 실무 중심의
지침서이자 건설회사 세무 실무자들이라면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상원 지음 | 북랩 펴냄 | 44,000원